

프랑스어 기술 한국 고전서사 연구* **

: 서영해의 저작을 대상으로

황인순***

<차례>

1. 서론
2. 저자 서영해와 서영해의 글쓰기들
3. 『어느 한국인의 삶』과 『거울, 불행의 원인』의 상호적 탐색
4. 『갓바치의 딸』과 『거울, 불행의 원인』의 상호적 탐색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영해가 프랑스어로 기술한 『어느 한국인의 삶』(Autour d'une vie coréenne, 1929), 『거울, 불행의 원인』(Miroir, cause de malheur, 1934), 『갓바치의 딸』(La fille d'un cordonnier, 미상)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언어로 된 한국 고전서사 텍스트를 한국문학 연구영역에서 다루고자 한다. 『어느 한국인의 삶』과 『거울, 불행의 원인』은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으며 마지막 『갓바치의 딸』은 출처만이 확인되었을 뿐, 연구대상으로 처음 소개되는 텍스트로 현재 부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육필 원고의 존재는, 서영해가 프랑스에 체류한 동안 한국의 고전서사를 꾸준히 프랑스어로 기술해왔음을 보여준다.

한국어 화자인 서영해가 프랑스어로 저술한 이 저서는 고전서사를 재해석한 것으로 서영해가 해석한 한국, 혹은 번역한 한국이 재현된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체류와 한국 독립의 천명, 그리고 그에 기반한 한국 고전의 이해가, 서영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1072)

** 이 논문은 2023년 8월 17일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23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조교수

해의 다시쓰기, 즉 번역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글쓰기를 둘러싼 바깥과 안의 관계들을 중심으로 서영해가 한국의 고전서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텍스트들을 상호적으로 분석하고 언어적, 문화적으로 번역된 한국 고전서사의 면모를 살핀다. 서영해가 강조한 것은 민중적 전통과 관습의 계승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변형없는 계승은 아니며, 기존의 전통이 폐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네트워크 안에서 재구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고전과 설화, 구술적 이야기에 대한 서영해의 해석이며, 근대 이후의 한국에 대한 그의 소망이 재현된 것이기도 하다.

어느 한국인의 삶, 거울, 불행의 원인, 갓바치의 딸, 서영해, 프랑스어 기술 고전서사

1. 서론

본 연구는 서영해가 프랑스어로 기술한 『어느 한국인의 삶Autour d'une vie coréenne』(1929), 『거울, 불행의 원인Miroir, cause de malheur』(1934), 『갓바치의 딸La fille d'un cordonnier』(미상)¹⁾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언어로 된 한국 고전서사 텍스트를 한국문학 연구영역에서 다루고자 한다. 『어느 한국인의 삶』과 『거울, 불행의 원인』은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으며 마지막 『갓바치의 딸』은 그간 출처만이 확인되었을 뿐, 연구대상으로 처음 소개되는 텍스트로 현재 부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어 화자, 프랑스어 기술, 프랑스어 출판이라는 간략한 조건만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텍스트들은 흥미로운 정체성을 가진다. 외국어로 기술된

1) 이 연구는 부산박물관의 자료 협조로 수행될 수 있었다. 박물관 보관서에 있는 서영해의 육필원고를 열람하고, 이를 대상으로 원고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신동조 선생님과 정주희 선생님을 비롯한 부산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국 고전서사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 텍스트는 한국인이 프랑스에 체류하며 쓴 것으로 일종의 이주민적 혹은 이방인적 글쓰기의 정체성을 가지기도 한다. 한국어라는 공간의 바깥으로 이동해야만 했던 한국어 화자가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 한국인과 한국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고전서사의 다시쓰기이며, 확장된 의미에서의 번역이고, 이를 통해 망명작가 혹은 이방인 작가로서 서영해의 문학적 경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

기존 문학 연구 분야에서는 외국어 고전서사를 다룬 연구들이 적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관련 연구에 관심이 커졌으며 완역본의 출간²⁾ 역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프랑스어 기술 한국 고전서사 연구는 홍종우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지만³⁾, 최근 들어 서영해를 연구대상으로 다루기도 한다. 서영해의 경우 특히 한국어 화자라는 점에서 유표적이다.⁴⁾ 잊혀진 독립운동가라는 관점에서 역사학 분야에서 다루는 경우가

2) 『외국어 번역 고소설 선집 1-10』이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 중 하나로 주로 <심청전>, <춘향전> 등을 위시한 고소설들을 대상으로 번역을 수행했으며 영어-한국어 역이 대부분이지만 프랑스어-한국어 역 역시 찾아볼 수 있다.

3) 송태현, 「『심청전』의 프랑스 역본 『다시 꽃 핀 마른 나무』의 문화적 의의」, 『동서비교문학저널』, 47, 2019,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137~160쪽; 장정아, 「외국문학텍스트로서 고소설 번역본 연구(1) - 불역본 『춘향전』 Printemps parfumé에 나타나는 완벽한 ‘춘향’의 형상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48, 2015, 열상고전연구회, 379~411쪽;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번역본과 시선의 문제 - 홍종우의 불역본 『심청전 Le Bois sec fleuri』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109, 2017, 167~193쪽; 장정아, 이은령, 「홍종우의 『直星行年便覽』 불역본과 쿠랑의 「한국의 종교의례 약사略史」를 중심으로 본 19세기 말 프랑스 한국학의 한 양태」, 『인문연구』 8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115~152쪽.

4)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던 저자 서영해가 어떻게 비교적 단시간 내에 장편을 기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홍종우가 통역을 통해 로니J.H. Rosny 형제와 함께 프랑스어 텍스트를 기술했던 것처럼, 서영해에게도 나타나지 않은 조력자가 있다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갯바치의 딸』의 원본 원고에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 프랑스어 문법 오류가 발견되었고, 정·부판사의 오류 등 매우 ‘한국적 오류’의 하나인 것으로 보아, 서영해가 이 텍스트들을 프랑스어로 직접 저술했다고 보아도

많았으며 대부분 독립운동가로서의 서영해의 업적을 규명하는 경우가 많다.⁵⁾ 그러나 언급했던 것처럼 서영해는 문학 저술을 적지 않게 했으며, 그가 남긴 문학 관련 저술들을 모아도 상당한 분량이 된다.⁶⁾ 특히 그의 글쓰기에는 고전서사적 소재의 선택이 적극적으로 있었던 바,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서영해의 출판물들을 독립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서영해의 글쓰기를 둘러싼 그 바깥의 맥락들을 살피고, 고전서사를 중심으로 서영해의 글쓰기들이 내적으로 가지는 일관성을 상호 비교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2. 저자 서영해와 서영해의 글쓰기들



그림 1 서영해가 거주하던 곳이자 고려통신사였던 7, Rue Malebranche

좋을 것 같다. 공식 출판에서는 아마 이러한 오류들을 감수했을 것이다.

- 5) 김민호,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특파원』, 선인, 2021; 장석홍,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불특파위원, 서영해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8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215~249쪽; 정상천,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산지니, 2019; 최두진, 「독립운동가 서영해의 삶과 교육활동 연구」, 『항도부산』 4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177~217쪽.
- 6) 소개한 『갓바치의 딸』처럼 남겨진 육필 원고가 있으며, 이것들은 고전서사적 혹은 문학적 글쓰기로 추론된다.

저자 서영해는 1902년 부산 태생으로 본명은 서희수였고 1919년 3·1 운동 이후 상해 망명 후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머물다가 프랑스로 유학하여 임시 정부의 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⁷⁾ 상해 망명 당시 중국인의 양자가 되어 중국 국적의 여권을 발급받았고, 서영해로 개명하였다고 알려진다. 이로 인해 귀국 시에는 중국인으로 분류되어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행방불명된다. 1920년에 프랑스 유학을 떠나 프랑스 보베의 고등학교에서 수학 후 29년 파리 고등언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자신의 숙소에 고려통신사(Agence Korea)를 설립하였다.⁸⁾ 이후 『어느 한국인의 삶』(1929), 『거울, 불행의 원인』(1934) 등을 프랑스어로 출간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다 광복 이후 47년에 한국으로 귀국한다. 이후 남한 단독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48년 프랑스로 재출국한 후, 장기체류를 위해 상해로 돌아와 비자 발급을 기다리던 중, 내전을 맞게 되고, 중국 국적의 여권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진다.⁹⁾



그림 2 조소앙의 외교활동지/대한민국임시정부

7) 7, Rue Malebranche는 파리 5구에 위치하며 그간 호텔로 사용되었으나 2023년 5월 방문했을 당시 폐업한 것으로 보였다. 임시정부 조소앙의 외교 활동지로 알려진 6, Rue gay-lussac과 매우 가깝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38, Rue de Chateaudun은 9구에 있다.

8) 서영해의 거주지와 고려통신사의 주소는 같다. 서영해는 이곳에서 살면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국인의 삶』 역시 고려통신사에서 간행되었다.

9) 정상천(2019), 앞의 책 참조.

이 과정에서 한국어 화자인 저자 서영해는 『어느 한국인의 삶』(1929), 『거울, 불행의 원인』(1934), 『갓바치 딸』(미상)¹⁰⁾을 모두 프랑스어로 기술한다. 서영해가 프랑스에 체류한 주목적을 임시정부의 유럽 외교 수행이라 볼 때, 이들 텍스트는 단순히 문학적 의도보다는 한국의 역사, 문화, 문학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우선할 것이다. 그러나 서영해의 다시쓰기는 그러한 목적과는 별개로, 야담과 설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개입되어 있으며 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방인으로 프랑스에 체류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한다면 서영해의 글쓰기는 일종의 망명 작가의 글쓰기로도 분류될 수 있다.¹¹⁾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글쓰기의 정체성을 단순히 ‘명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면모를 좀 더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서영해의 다시쓰기를 넓은 관점에서의 번역으로 전제한다. 원전이 존재하는 번역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내용적 측면을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언어적 번역과 문화적 맥락과 자신의 의도를 고려하여 다시쓰기 하는 문화적 번역의 측면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¹²⁾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체류와 한국 독립의 천명, 그리고 그에 기반한 한국 고전의 이해가, 서영해의 다시쓰기, 즉 번역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일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글쓰기의 바깥과 글쓰기 자체의 맥락들을 고려

10) 정상천의 저서에서 단편소설이라고 언급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이 자료를 『구두장수의 딸』로 기술하였다. 의미상 갓바치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갓바치의 딸로 표기한다.

정상천(2019), 위의 책, 7쪽.

11) 이와 관련하여 서영해의 텍스트를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명명하고 저항서사의 특질을 지칭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성창,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의 문화적 재현- 서영해의 프랑스어 창작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6,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12)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영해의 번역을 팽의 번역으로 전제하며, 그 다시쓰기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언어적 번역에 조금 더 주목한 논문은 『거울, 불행의 원인』을 대상으로 한 황인순, 「근대 프랑스어설화집의 기술 체계 연구-〈거울, 불행의 원인〉을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45, 한국구비문학학회, 2017, 305~338쪽 참조.

한다. 글쓰기 바깥의 맥락으로는 서영해의 글쓰기를 둘러싼 다양한 배경들을 살피고 글쓰기 자체의 맥락으로는 고전서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다시쓰기 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서영해의 다시쓰기 바깥의 맥락을 탐색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다. 독립운동가 서영해의 삶을 추적할만한 자료들은 많아졌지만, 그의 문학적 저술과 직접 관련되는 배경들을 탐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려할만한 자료는 영해문고였다. 영해문고는 부인인 황순조 여사가 서영해의 장서들 총 859권을 1982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목록이다.¹³⁾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요청하여 관련 목록을 수령할 수 있었다.¹⁴⁾ 서영해가 이 책들을 소장했다고 해서 이들이 서영해의 글쓰기에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끼쳤거나 특정 본이 서영해 설화집의 선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남겨진 장서가 서영해가 읽은 책의 전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서영해가 보유한 책의 전부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의 관심사를 추측하고 연관 관계의 일부를 추론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영해의 영해문고 목록 중 문학류를 중심으로 한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No	본표제	저작자	발행년	언어
1	十三經	商務印書館 [編]	1914	chi
2	L'Amour et la haine	Pierre Janet	1932	fre
3	(精選講義)榮根譚	[洪應明 著]; 韓龍雲 撰	大正6 [1917]	kor
4	Doctrines et maximes	tr. and accomp. d'une note sur le ((dinamen)) by Maurice Solovine	1938	fre

13) 정상천(2019), 앞의 책, 66쪽.

14) 영해문고와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문의하였다. 영해문고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문학류의 도서들을 요청하였고, 이를 목록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신 한혜선 주무관님께 감사드린다. 해당 목록은 영해문고의 전권은 아니고 도서 분류표상 문학 관련 영역으로 분류되는 도서들만을 포함한다.

5	(La)Parole et l'écriture	Louis Lavelle	1942	fre
6	(La)Patson eu la religion	Leon Brunschvicg	1939	fre
7	五百年奇譚	崔東洲 述	大正8 [1919]	kor
8	五百年奇譚	崔東洲 述	大正12 [1923]	kor
9	(奇譚秘話)李朝五百年 野史	白岳山人 編	단기4288 [1955]	kor
10	한국통사	박은식 저; 김병식 역	1917	kor
11	倍達族歷史	金獻 編	大韓民國 4[1922]	kor
12	朝鮮歷史	崔南善 著	단기4279 [1946]	kor
13	(完譯)三國遺事	一然 選; 古典衍譯會 譯	단기4287 [1954]	kor
14	朝鮮史研究	鄭寅普 著	1946	kor
15	L'Homme et le sacre	Roger Caillois	1939	fre
16	(Du)neant a Dieu	Ernest Hello; fragments recueillis par Jules-Philippe Heuzey	1930	fre
17	(Du)neant a Dieu	Ernest Hello; fragments recueillis par Jules-Philippe Heuzey	1930	fre
18	Le probleme du dien	Edouard Roy	1930	fre
19	L'Atheisme	Fiedantec	[19--]	fre
20	Consentement et creation	Aime Forest	[c1943]	fre
21	(Les)l'egendes mythologiques de la Grece et de Rome	par Henri Aubert	[1947]	fre
22	(La)recherche d'une premiere verite	fragments posthumes recueillis par Charles Renouvier; notice biographique par L. Dugas	1924	fre
23	Petit expose pittoresque de la mythologie Greco-Latine	H. de Harven	1927	fre
24	(La)merveilleuse legende de Siddharthacakya-Mouni Bouddha	Claude Aveline	1928	fre
25	Memoires de la tribune	Anatole Pierre Armand de Monzie	[1943]	fre
26	(漢日鮮)新玉篇	玄公廉 編	昭和5 [1930]	kor
27	時文讀本	崔南善 著	大正7 [1918]	kor

28	辭源	商務印書館 [編]	[발행년 불명]	chi
29	辭源	商務印書館 [編]	[발행년 불명]	chi
30	廣辭林	金澤庄三郎 編纂	1929 (昭和4)	jpn
31	新修漢和大辭典	小柳司氣太 著	昭和14 [1939]	jpn
32	朝鮮俗談	金相翼 著	大正11 [1922]	kor
33	(L')oeuvre de secours populaire de France	discours de E. Bureau	1937	fre
34	朝鮮文學傑作集	張道斌 著	大正15 [1926]	kor
35	物語文學	池田龜鑑 著	昭和13 [1938]	jpn
36	源氏物語抄	池田龜鑑 編	昭和14 [1939]	jpn
37	養氣集	山田準 著	昭和14 [1939]	kor
38	にゅんちゃん	安本末子著	昭和34 [1959]	jpn
39	Rubezahl	J. Delfel	1939	
40	Munchhausens Reise Durch die Erde	A. Ueibecker	1936	fre
41	Formation spirite du globe terrestre	Alphonse Momas	1923	fre
42	(Les)idees et les lettres	Etienne Gilson	1932	fre
43	L'Art	Charles Lalo	1939	fre
44	Propos de litterature	Alain	1934	fre
45	Conference		1938	fre
46	Cours de litterature	Reunion de Professeurs	1913	fre
47	L'Aft poetique	F. Brunetiere	1911	fre
48	Dictionnaire methodique et pratique des rimes francaises	Philippe Martinon	1915	fre
49	Litterature et lutt des classes		1932	fre
50	Babbitt	Sinclair Lewis, tr. par Paul Morand	1930	fre

51	(Un)Americain parle... roman	Sinclair Lewis, tr. from English by Martin-Chauffier	1931	fre
52	Fast start, fast finish	Stephen Birmingham	[1966]	eng
53	Indian summer	John Knowles	[1966]	eng
54	(The)fixer	Bernard Malamud	[1966]	eng
55	Litterature Anglaise	Edmund Gosse, tr. from English by Henry-D. Davray	1925	fre
56	Illusions		1931	fre
57	(The)conquered	Naomi (Haldane) Mitchison	[1923]	eng
58	(The)Delicate fire	Naomi Mitchison	1933	eng
59	Explication de la litterature allemande	Reme Lote		fre
60	Conversations de Goethe avec Eckermann	Johann Petter Eckermann. tr. from German by Jean Chuzeville	1942	fre
61	Faust (premiere partie)	Johann Wolfgang von Geothe, notes by J. Rohmer	1934	fre
62	(Le)second Faust	Goethe; notices et notes par Th. Gauthier	[1934]	fre
63	(Les)Brigands	Johann Friedrich von Schiller	1936	fre
64	Werther	by Goethe; tr. by par K'aubry	[19--]	eng
65	(やさしい)小住宅の設計	田中隆之助 著	昭和32 [1957]	jpn
66	<u>Contes danois</u>	Andersen; traduits pour la premiere fois par Ernest Gregoire & Louis Moland; ill. d'apres les dessins de Yan' Dargent	1979	fre
67	(Les)revenants	Henrik Ibsen	1942	fre
68	Histoire illustree de la litterature française ..	Gustave Lanon	1923	fre
69	Histoire illustree de la litterature française ..	Gustave Lanon	1923	fre
70	(Les)Plus Beaus poemes du coeur		[1800 -1899]	eng
71	Oeuvres de Francois Villon	with an introd by Francois Villon, Auguste Longnon	1930	eng
72	(La)fleur des poésies de P. de Ronsard	P. de Ronsard; recueillie par Henri Longnon	1923	fre

73	(La)fleur des poésies de P. de Ronsard	P. de Ronsard; recueillie par Henri Longnon	1923	fre
74	(La)fleur des poésies de P. de Ronsard	P. de Ronsard; recueillie par Henri Longnon	1923	fre
75	(La)fleur des poésies de P. de Ronsard	P. de Ronsard; recueillie par Henri Longnon	1923	fre
76	Poesies completes	Musset	[19--]	fre
77	Derniere prose d'almanach	Frederic Mistral	1930	fre
78	Nouvelle prose d'almanach	Frederic Mistral	1927	fre
79	(Le)reve D'une vie	Edouard Schure	1928	fre
80	Introduction a la methode de Paul Valery	Maurois Andre	1932	fre
81	Tel quel	Paul Valery	1943	fre
82	Fleurs de Reve	by Isis Copia	1911	fre
83	(le)coeur populaire	Johan Rictus	1920	fre
84	Theatre complet de J. Racine	by M. Felix Lemaistre	[19--]	fre
85	Theatre de Marivaux	Pierre Carlet de Chamblain de Marivaux	[19--]	fre
86	Tristant et Iseut	renouvele par Joseph Bedier	1942	fre
87	Oeuvres de Rabelais	Rabelais. adaptation en francais moderne par Jean Garros	1936	fre
88	Contes de fees	par Charles Perrault et Madame D'Aulnoy	[19--]	fre
89	Histoire de Manon Lescaut	L'Abbe Prevost	1924	fre
90	(Les)Confessions	J. J. Rousseau	1927	fre
91	(Les)Confessions	J. J. Rousseau	1927	fre
92	(Les)Confessions	J. J. Rousseau	1927	fre
93	Pages curieuses	Marquis De Sade	1928	fre
94	Madame Bovary	Gustave Flaubert	1931	fre
95	Balthasar	Anatole France	1889	fre
96	Thais	Anatole France	1920	fre
97	Contes choisis;	Guy de Maupassant; Herbert F. Collins	1967	eng
98	(Les)Soirees de Medan		1930	fre
99	(Les)Contes de Goha	Elian J. Finbert	1929	fre
100	(Le)secret D'anatole France	Charles Braibant	1935	fre

101	Premier de cordee	Roger Frison-Roche	1944	fre
102	<u>Contes Coreens</u>	A. Garin, adapt by de Serge Persky	1925	fre
103	(Un)nom	M. Maryan	1894	fre
104	(L')enfantement de la paix, roman	Henry Poulaillie	1926	fre
105	(Les)nouveaux contes de la louve	Ch. Gailly de Taurines; Henri de Nollhac	[1939]	fre
106	(Les)nouveaux contes de la louve	Gailly de Taurines	1939	fre
107	Ma mere and moi	Cheng Tcheng	1929	fre
108	(A)Travers la France		1933	fre
109	Vovage au centre de laterre	Jules Verne	1930	fre
110	Contes lithuaniens de ma mere l'Oye	O. V. de L Milosz; Jonas Basanavičius	[1933]	fre
111	Berceaux: roman	Marguerite Delachaux	[c1927]	fre
112	Kou l'Ahuri ou la misere dans l'abondance	Jacques Duboin	1934	fre
113	Faubourg Montmartre, roman	Henri Duvernois	1929	fre
114	(La)Grande passion d'Anatole France	Pierre Calmettes	c1929	fre
115	Propos d'Anatole France	Paul Gsell	1926	fre
116	(La)Garconne	Victor Margueritte	1922	fre
117	Frankenstein	Jean Nocher	1935	fre
118	Goethe et Beethoven	Romain Rolland	1930	fre
119	<u>Autour d'ame vie Coreenne</u>	Ring-Hai Seo	1929	fre
120	<u>Autour d'ame vie Coreenne</u>	Ring-Hai Seo	1929	fre
121	<u>Miroir, cause de malheur!</u>	Ring Hai Seo	1934	fre
122	(La)Cite des fous (souvenirs de Sainte-Anne)	Marc Stephane	1929	fre
123	(Les)Chefs-d'oeuvre de la lanvue francaiss des Origines a nos jours	Henri Bornecque	c1924	fre
124	(Les)Essais de Montaigne	par Gustave Lanson	[1930]	fre
125	(Les)Essais de Michel de Montaigne	Pierre Villey	1932	fre
126	Souvenirs de guerre	Alain	1937	fre
127	Souvenirs litt'eraires--et autres	Willy	[1925]	fre
128	L'art d'ecrire	Abel Hermant	1928	fre

129	(La)Divine cometie	Alighieri Dante	[19--]	fre
130	L'eneide	Virgile	[19--]	fre
131	L'ingénieux hidalgo Don Quichotte de la Manche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Xavier de Cardaillac; Jean Labarthe	1923	fre
132	L'ingénieux hidalgo Don Quichotte de la Manche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Xavier de Cardaillac; Jean Labarthe	1923	fre
133	L'ingénieux hidalgo Don Quichotte de la Manche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Xavier de Cardaillac; Jean Labarthe	1923	fre
134	L'ingénieux hidalgo Don Quichotte de la Manche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Xavier de Cardaillac; Jean Labarthe	1923	fre
135	<u>Contes negres de Cuba</u>	par Lydia Cabrera, tr. par Francis de Miomandre	[19--]	fre
136	Antigone	Sophocles. tr. von Walter Hasenclever		ger
137	Iliade, par Homere	tr. par Victor Magnien	1930	fre
138	(L')Odyssee	Homer	1942	fre
139	(Les)Oiseaux	Aristophane. tr. par. Mario Meunier	1927	fre
140	Tai-Pan	James Clavell	1966	eng
141	Sadhana	par Rabindra Nath Tagore, tr. par Jean Herbert	1940	fre
142	Pouchkine	M. Hofmann	1931	fre
143	(La)vie de Tchekov	Irene, Nemirovsky	[1946]	fre
144	(La)Danseuse coreenne (Ol-Soni)	by Waclaw Sieroszewski, tr. par Jacqueline Faury-Deguisne	1938	fre
145	(Le)Jade brise	Kio-Jen Liou, tr. from Chinese by Cheou-Kang-Sie	1927	fre
146	<u>Printemps parfume</u>	tr. from Korean by J.-H. Rosny	1892	fre

문학 관련 서적들의 목록은 프랑스어와 한국어 서적을 중심으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서적들이 섞여 있다. 설화관련 장서와 사전, 문법책이 적지 않으며, 그밖에 철학 사상류와 유럽 소설 및 시집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영

해가 독립 통신사를 운영하며 임시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이자 외교관이었음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글을 쓸 수 있고, 실제로 신문사에 기고한 칼럼들이 다수 확인된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문학적 성격을 가진 텍스트를 지속적으로 기술해 왔다는 것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야기했다. 서영해의 장서들을 보면 문학류가 적지 않고, 이는 그의 선택과의 연관성을 추측하게 한다.

다음은 연구 대상인 서영해의 세 텍스트들과 가장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추정가능한 것들이다. Contes로 표기된 각나라의 설화집들로 『덴마크 설화Contes danois』, 『나의 어머니 오이의 리투아니아 설화Contes lithuaniens de ma mere l'Oye』, 『쿠바의 흑인 설화Contes negres de Cuba』 등이 있고, 『샤를 페로의 요정 이야기Contes de fees』 역시 포함된다. 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각 나라의 설화집 쓰기에 대해 주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국 설화집으로는 『오백년 기담』과 『이조오백년 야사』, 『삼국유사』, 『한국문학결작선』이 있다. 외국어 기술 및 번역과 관련된 장서로는 불역된 홍종우의 『향기나는 봄(춘향)Printemps parfume』¹⁵⁾, 세로셰프스키Sieroszewsk의 『기생 월선이(La)Danseuse coreenne (Ol-Soni)』, 가린Garine의 『한국설화Contes Coreens』 등이 있다. 독립된 설화집들이 많아 특히 『거울, 불행의 원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해보고자 했으나, 특정 본을 대상으로 하여 수재하거나 번역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었다. 다만, 설화 혹은 야담을 일종의 장르로 인식하고 이를 묶어

15) 이 책은 홍종우의 저서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홍종우와 로니 J.H. Rosny형제의 공역 과정에서 프랑스로 번역”된 것이다. 원전은 『춘향전』이며 꽤 개작이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인 서사구조는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다. 장서 목록에는 없으나 홍종우의 『다시 꽃 핀 고목Le Bois Sec Refleuri』(1895)은 심청을 대상으로 한 소설인데, 훨씬 많은 개작이 이루어졌다. 서영해가 『향기나는 봄(춘향)』을 알고 있었다면 『다시 꽃 핀 고목』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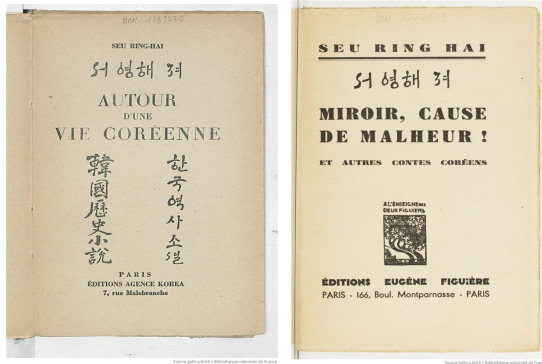
장정아 외 3인 저, 『외국어 번역 고소설 선집 9-번안소설 1 춘향전』, 박문사, 2017, 11쪽 참조.

설화‘집’을 구성하는 배경지식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서영해는 『거울, 불행의 원인』의 서문에서도 설화와 이야기에 대한 문학적이고 장르적인 이해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다시쓰기가 구술적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시쓰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내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수많은 한국 설화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느만큼은 환상적인 방식으로 들어봤을 이야기들이다. 어린 시절의 아련한 기억을 끌어내어 이 설화집을 구성한 것이다. “구성”이라고 말한 것은 이야기들이 (기존) 텍스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특정) 텍스트를 따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문헌적으로 전승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할머니께 구술로 들어 알게 된 것이다. 어떤 이야기들은 매우 열정적인 달변가이자 용감한 농부인 삼촌에게서 듣기도 했고, 전날에 들려준 이야기를 반복하라고 시키는 매우 엄격해보이는 학교 선생님께 듣기도 했다.¹⁶⁾

16) Le présent volume ne représente en somme qu'une infime partie de ces innombrables contes coréens que j'ai entendus dans mon enfance que tout Coréen, sans doute, doit avoir entendu d'une façon plus ou moins fantaisiste. C'est en fouillant les souvenirs lointains de ma tendre enfance, en effet, que j'ai composé le présent recueil. Je dis bien « composé », car je ne me suis servi d'aucun texte, pour la bonne raison qu'ils n'en ont point. Cependant quelques uns d'entre eux ont une tradition écrite. Mais ceux-là mêmes, je les tiens oralement de ma grand' mère. Pour les autres, j'en tiens de mon oncle, brave paysan à la verve si fouguese, de mon maître d'école aux traits si sévères qui nous faisait souvent répéter son histoire de la veille.
서영해(1977), 앞의 책, 9쪽. (황인순, 「1900년대 외국어 기술 설화집의 지형도 연구 -다시쓰기를 통해 번역된 한국」, 『韓國古典研究』 61, 한국고전연구학회, 304~305쪽 재인용.)

3. 『어느 한국인의 삶』과 『거울, 불행의 원인』의 상호적 탐색



이처럼 서영해는 설화의 구술성과 재구성에 대한 장르적 변전을 이해하면서 고전서사를 다시쓰기한다.¹⁷⁾ 서영해의 『어느 한국인의 삶』은 한국역사소설이라는 부제가 있으며, 아마도 한국역사에 관한 소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상당 부분 가져와서 이것을 허구적 서사와 뒤섞어 기술한다. 근대 조선과 한국의 역사와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구성되었지만 역사 기술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소설에 가까우나 교조적 성격에서 벗어난 순수 문학적 텍스트라 하기는 다소 어렵다. 다른 두 텍스트와 비교하면 고전서사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설의 일부분에서 차용한 정도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박선초로, 질곡의 역사를 겪은 인물의 일대기적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⁸⁾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본다면, 소설의 1부는 한국의

17) 『어느 한국인의 삶』은 서영해의 신문사 Agence Korea에서 직접 출판하였다. 그러나 『거울 불행의 원인』은 Editions eugene figuiere이라는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박선초라는 이름이 조선을 거꾸로 쓴 것처럼 보일만큼, 이 인물은 조선을 총체적으로

근대, 2부는 한국의 전근대와 이야기, 그리고 3부는 세계의 정세와 한국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줄거리이다. 소설에서는 3.1운동 이후의 엄혹한 현실을 제시하면서도 비-성공에 좌절하기 보다는 독립의 정신과 행위를 영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것은 비극적이기보다는 어느만큼 이상적인 결말에 가까운데, 특히 독립선언서의 내용 전체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이상향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추구해야 할 자유와 정의, 탈제국주의의 보편 가치임을 환기한다. 다시 말해 이 텍스트는, 조선의 독립 선언서와 그 당위를 비문학적 서술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구현해낸 장편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고전서사의 차용은 가장 첫 부분을 단군신화로 시작한 것, 옛날이야기와 같은 서술로 일본과의 관계를 기술한 부분, 중간에 삽입된 한국 설화의 내용 등에서 발견된다. 고전서사가 파편적이지만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2부로, 전체에서는 다소 이질적이나 가장 문학적인 장이다.

이와 비교하여 『거울, 불행의 원인』은 설화를 재구성하여 기술한 설화 집이며, 『갓바치의 딸』은 전면적인 고전소설과 설화의 다시쓰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전서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한국인의 삶』은 고전서사의 파편적 활용, 『거울, 불행의 원인』은 고전서사의 원전¹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후 살펴볼 『갓바치의 딸』은 고전서사의 보다 적극적인 개작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거울, 불행의 원인』에 수록된 설화들은 서영해의 다른 두 텍스트에 다시 수록되는 경향이 있다.

상징하며 동시에 저자 자신을 반영한다. 주인공의 배경이 저자와 매우 유사한데,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유복한 집안, 그러나 양반신분은 아닌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중국에 가서 귀화 신분을 받아 독립운동을 도모했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소설에서 주인공이 근대 조선의 계급제 등에 대해 치열하게 지적하는 등 사상적으로 스스로의 관점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아마 저자 서영해의 세계관과 교집합을 가진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19) 여기서 원전이라는 의미는 특정한 본을 원전으로 상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이본의 총체라는 의미에 가깝다.

『거울, 불행의 원인』과 『어느 한국인의 삶』에는 동일한 설화가 실려 있고, 『갓바치의 딸』은 『거울, 불행의 원인』에 수록된 설화와 유사성을 가진다. 따라서 텍스트간의 교집합을 중심으로 다시쓰기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어느 한국인의 삶』에서는 박선초의 고향인 영산에서 한국의 전통과 풍습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서희 전설〉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두 이야기는 제목은 나오지 않으나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거울 불행의 원인』²⁰⁾에 〈수수의 얼룩〉과 〈한국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동일한 이야기들이다. 『거울 불행의 원인』은 설화집이므로 그 전체 목차의 흐름은 고려할 수 있으나

20) 자세한 내용은 황인순, 「서영해 설화집 『거울, 불행의 원인』의 서사적 특질 연구」,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회, 2019, 321~360쪽.

	제목	제목
1	거울, 불행의 원인 Miroir, Cause de Malheur!	19 채두봉 Tchai du-Bon
2	윤희 이야기 Yun-Whai	20 우림 Oulin
3	심청 Sim-Tchum	21 흑보 Hoc-Bo
4	홍련 Nénuphar-Rouge	22 류진 Lieu-Jin
5	소중한 독약 Poison précieux	23 치약 Tchi-Ac
6	절개없는 여자 Femme infidèle	24 토끼의 간 Le foie du lapin
7	초상 치른 고양이 Le chat en deuil	25 착한 바보, 마십 Maship, la bonne bete
8	기발한 거짓말 Un ingénieux mensonge	26 개구쟁이 꼬마 L'enfant Polisson
9	상가승무노인곡Sanga-Singmou-Loinkoc	27 두꺼비의 보은La reconnaissance d'un crapaud
10	수수의 얼룩Les taches du sorgho	28 이돌이Li Dory
11	김기수Kim kisou	29 아이 눈물의 위력 La puissance des larmes d'enfant
12	홍부놀부 Hunghou-Norbou	30 아미타불 A-MI-Ta-Boul
13	천안 삼거리의 능수버들 Les saules pleurers du carrefour Tchun-Ansan-Gry	31 비극적인 수수께끼 Une énigme tragique
14	마법의 구슬 La bille magique	32 석상의 기억 Une statue mémorable
15	잃어버린(도둑맞은) 종이를 어떻게 찾았을까 Comment on trouve les papiers perdus(volés)	33 비밀스러운 도지사 Un préfet mysterieux
16	기적의 종 La cloche miraculeuse	34 뛰어난 아이 L'enfant terrible
17	여우와 호랑이 Le renard et le tigre	35 한국의 전설 Une légende coréenne
18	기이한 판결 Un curieux jugement	

개별 이야기는 하나의 완결된 대상이다. 그러나 『어느 한국인의 삶』은 전체가 한편의 완결된 소설이고 부분적으로 한국에 대한 역사와 관습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설화가 어떠한 기술 맥락에 놓여 있는지 살펴야 그 구체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1) 고전서사의 다시쓰기로써 <수수의 얼룩>

『거울 불행의 원인』과 『어느 한국인의 삶』에 수록된 <수수의 얼룩>은 다음과 같은 서사구조를 가진다.²¹⁾

- 1) 가난한 어머니가 아이를 셋 데리고 살다.
- 2) 어머니가 일을 나갔다가 쌀, 사탕, 고기를 얻어 돌아오다.
- 3)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호랑이를 만나 쌀, 사탕, 고기를 빼앗기고 입은 옷까지 빼앗긴다.
- 4) 호랑이가 어머니로 분장하여 문을 열도록 하다.
- 5) 큰딸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님을 의심하다가 결국 문을 열다.
- 6) 들어온 호랑이가 막내를 잡아먹고 오누이가 그 사실을 깨닫다.
- 7) 오누이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방을 빠져나가 도망치다.
- 8) 오누이가 강가의 버드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호랑이가 뒤늦게 이를 따라오다.
- 9) 호랑이가 어떻게 나무에 올라갔냐고 묻자 오누이가 기름을 발라 올라갔다고 전하다.

21) 두 이야기의 서술은 완전히 일치하며 아래는 그 마지막 부분으로 짧은 예시이다. 호랑이는 불행하게도, 사탕수수대 위로 떨어졌고, 수수대가 호랑이를 완전히 관통했다. 그리하여 호랑이는 피를 칠칠 흘리며 죽었다. 이것이, 그 이후로, 수수대에 붉은 얼룩이 생긴 이유이다. (얼룩은) 호랑이의 피인 것이다. Malheureusement pour lui, il vint s'écraser sur une canne de sorgho, qui le traversa de part en part. Le tigre mourut donc, laissant couler abondamment son sang. Voilà pourquoi, depuis lors, les cannes de sorgho sont tachetées de rouge. C'est le sang du tigre. 『거울, 불행의 원인』 54쪽; 『어느 한국인의 삶』, 108쪽.

- 10) 호랑이가 계속 떨어지자 남동생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라 비웃다.
- 11) 호랑이가 올라오자 오누이가 하느님에게 자신들을 사랑한다면 튼튼한 동아줄로 만든 바구니를, 그렇지 않다면 썩은 동아줄로 엮은 바구니를 내려달라고 말한다.
- 12) 오누이가 바구니를 타고 가까스로 하늘로 올라가다.
- 13) 호랑이도 아이들 목소리를 흉내내어 하느님께 똑같은 소원을 빌다.
- 14) 썩은 바구니를 탄 호랑이는 이를 타고 올라가다 수수밭에 떨어지다.
- 15) 수숫대에 몸이 찢려 죽은 호랑이의 피가 수숫대의 붉은 색깔이다.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호랑이의 피가 수숫대의 얼룩으로 남겨지는 결말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성의 이분들이 드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형했을 때 이야기는 신화적 속성보다는 민담적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진다.²²⁾ ‘오누이’의 결말에 집중하거나 그 신화성에 집중하기보다는 ‘호랑이’라는 부정적인 대상에 관한 명징한 처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서영해의 이야기 쓰기를 모두 일본과 한국의 관계, 즉 제국주의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환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한 다양한 해석 중 거짓으로 선량한 주체들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가해자의 징치에 집중하는 이야기로 다시쓰기했다고는 말할 수 있겠다.

한편, 『어느 한국인의 삶』에서 이 이야기가 놓여지는 자리는 2부의 앞부분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뵈러 고향에 내려갔을 때, 가족의 풍습과 시골의 풍경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기술한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가족 공동체 혹은 어머니의 희생에 기반한 가족애에 방점을 찍어 읽힐 수 있다.

22) 조은상은 이처럼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는 결말대신 호랑이의 징치로 끝맺는 결말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변이형 중 하나로 지적한다. 이러한 변이는 호랑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의 악행에 대한 당연한 징치를 강조하는 것이라 해석한다. 조은상,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각편의 변이양상과 서사적 의미」, 『겨레어문학』 51, 겨레어문학회, 2013, 623쪽.

〈수수의 얼룩〉을 단순히 가족의 이야기로만 환원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해석의 스펙트럼 중, 서영해가 보다 강조하여 다시쓰기한 것이 가족이라는 키워드인 것이다. 가족의 안온과 평화를 깨는 침입자이자 가해자인 호랑이의 형상을 구현하며 그 정치로 결말을 이루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개연을 가진다.

2) 고전서사의 다시쓰기로써 〈한국의 전설〉

〈한국의 전설〉 역시 두 책에 수록된 이야기가 동일하다.²³⁾ 다만 이 이야기는 서희의 할아버지인 서신일의 일화로 알려진 전설과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로 분류된 유형의 이야기가 혼재된 형태로 앞선 〈수수의 얼룩〉보다는 개작의 정도가 크다. 다음은 수록된 이야기의 서사구조이다.

- 1) 시인이 산책을 나가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사슴을 만나.
- 2) 사슴이 몸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시인이 수풀을 모아 덮어주고 사슴을 숨기다.
- 3) 두명의 포수가 뛰어와 사슴을 보았냐고 묻다.
- 4) 시인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사슴이 갔다고 하다.
- 5) 포수가 간 후 사슴이 나와 숲으로 사라지다.
- 6) 그날 밤 시인이 새벽녘에 꿈을 꿔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 자신의 아들을 구해 줘 감사하다고 하며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 말하다.

23) 아래의 원문은 부인이 첫날밤에 아이를 낳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들은 머리를 떨군채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침묵을 깨고, 부인에게 말했다. 안심하세요 부인. 나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 약혼식이 있기 전날, 아버님께서 부상당한 사슴을 구해주었고, 당신과 똑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더욱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Ils l'écoutèrent tous deux la tête baissée. Le mari rompant le silence, dit à sa femme : —Rassurez-vous, madame, je vous crois, j'ai d'autant plus de raisons de vous croire, que mon père a sauvé en effet, le jour qui précédait nos fiançailles, un cerf blessé, et la nuit même, il a eu un rêve semblable au vôtre! 『겨울, 불행의 원인』 54쪽; 『어느 한국인의 삶』, 108쪽.

- 7) 시인은 꿈 이야기를 부인에게 전하고, 집안에 4대째 독자가 있으니 다행스런 예견이라고 하다.
- 8) 시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성실하고 영민하여 한양 양반댁과 정혼하고자 하다.
- 9) 무남독녀인 점이 걸리지만 혼인을 수락하고 결혼을 준비하다.
- 10) 결혼 첫날밤 신부가 고통을 호소하다가 아이를 낳다.
- 11) 아들은 놀랐지만 뒤처리를 하고, 하인에게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아기를 몰래 데리고 빠져 나가다.
- 12) 아들은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다리 밑에 무언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거기에서 아이를 발견한 것처럼 꾸미다.
- 13) 아들은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가 길에서 발견했다고 하고 자신의 집(시인의 집)에서 키우다.
- 14) 아들과 며느리는 20년간 해로하다.
- 15)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살던 청년이 아들에게 자신의 부모에 대해 묻다.
- 16) 아들은 부인에게 그 날의 일을 묻다.
- 17) 부인은 결백을 호소하면서 약혼 전날 꿈을 꾸었는데 백발 노인이 나타나 보은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 결혼식날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했다.
- 17) 아들은 아버지의 경험을 알고 부인의 말을 믿다.
- 18) 청년은 아버지의 뜻으로 공부를 배웠고, 아들이 그를 양아들로 삼았다.
- 19)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은혜를 갚겠다며 집을 떠났고 30년이 흘렀다.
- 20) 아들이 죽을 때가 되어 청년이 찾아와 풍수를 배웠다고 하며 좋은 자리를 찾아 묻겠다고 하다. 그리고 아들은 결국 신령이 될 것이라 이야기 하다.

이야기의 앞부분은 서신일이 시슴을 구해주어 그 은덕으로 집안이 대대로 고관대작이 될 수 있었다는 서희 전설 혹은 서신일 전설류의 이야기와 흡사하다. 『역옹패설』에 실린 이야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 서신일이 살고 있는 집에 화살 쫓힌 사슴이 들어와 그것을 뽑고 숨겨준다.
- 2) 사냥꾼이 서신일의 집에 왔으나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다.
- 3) 꿈에 신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자신의 아들 사슴을 구해주었으니 자손이 대대로 재상이 된다 하다.
- 4) 서신일이 80이 되어 아들을 낳고 이름을 필이라 했는데, 그 이후 희와 놀이 대대로 태어나 삼대가 묘정에 배향되다.²⁴⁾

같은 이야기 중 『한국구비문학대계』²⁵⁾에 수록된 본들을 살펴보면, 풍수와 관련된 서사 단락이 개입된 경우가 좀 더 많다. 따라서 <한국의 전설>을 서희 전설류의 민담적·구술전승적 확장과 변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슴이 나타나 은혜를 갚는 모티프를 제외한 전체의 서사구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로 분류된 유형의 이야기와 더욱 유사하다.²⁶⁾ 다음은 해당 유형의 이야기 중 하나를 서사단락으로 제시한 것이다.

- 1) 조씨 집안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첫날 저녁에 신부가 아이를 낳다.

24) 이재현, 박성규 역, 『역주 역옹패설』, 보고사, 2012, 85~86쪽.

25) 다음은 풍수 부분이 강조된 『구비문학대계』의 관련 이야기들이다.

(사슴이 잡아준 이천 서씨 뗏자리) 1) 서희 장군이 이천 서씨이다. 2) 서희 장군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다가 지나던 사슴을 나무 속에 숨겨준다 3) 포수가 와서 사슴을 찾으니 모르는 척 하다. 4) 사슴이 고맙다고 명당을 잡아준다.	(사슴이 알려 준 명당) 1)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지나던 사슴을 나무 속에 숨겨준다 2) 포수가 와서 사슴을 찾으니 모르는 척 하다. 3) 사슴이 고맙다고 근처에 명당을 잡아준다. 4) 이후 집안이 부흥하다.	(사슴과 서씨 집안) 1)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지나던 사슴을 나무 속에 숨겨준다 2) 포수가 와서 사슴을 찾으니 모르는 척 하다. 3) 사슴의 보은으로 집안이 부흥하다.
--	--	---

26) 흥나래는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중에서도 풍수발복형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서영해의 다시쓰기는 이 유형과 거의 흡사하다. 이 유형의 특징으로 구비설화적 전승이며 ‘한양조씨시조담’이라는 시조담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흥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양상,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회, 2011, 204쪽.

- 2) 남편이 미역국과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핑계대고 이를 신부에게 준다.
- 3) 아이를 옷에 싸서 길 바깥에 두다.
- 4)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가는 길에 아이를 우연히 발견한 척 하고 데리고 가다.
- 5) 아이를 키우고 아래로 삼형제를 낳다.
- 6) 아들들이 커서 남편이 아들들에게 첫날밤에 낳은 아이가 있으면 어찌졌냐고 묻다.
- 7) 다른 아들들은 다 키운다고 하는데 첫날밤에 태어난 아들만 키우지 못한다고 하다.
- 8) 남편이 화가나서 네가 첫날밤에 낳은 아이라 하다.
- 9)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어머니가 개울에 떠내려오는 오이를 먹었다가 갑자기 배가 불러왔다고 하다.
- 10) 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집을 나가다.
- 11) 아들이 남편의 상에 돌아오다.
- 12) 아들이 남편의 관에서 표식을 떼어 남경에 두고, 임금 날 자리라 하다.
- 13) (17대) 후손이 이후 가보니 17대손이 찾아올 것이라 예언되어 있다²⁷⁾

서희 전설은 보은으로 집안이 대대로 복을 입게 되므로 귀한 자손들이 태어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이야기에서는 집안의 핏줄을 이어받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다. 두 이야기는 하늘의 뜻으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상반되는 서사이다. 그런데 서영해는 이 두 이야기를 이어 다시쓰기하면서 가계의 변영이 아니라 한 가정의 덕쌓기와, 온전하지 못한 보은, 그리고 이후 예견되는 긍정적 미래 정도로 해석되는 변이형을 만들었다. 고유명사를 과감하게 사용하거나, 주요 소재를 제목으로 구체화하는 편이었던 다른 수록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한국의 전설〉이라는 제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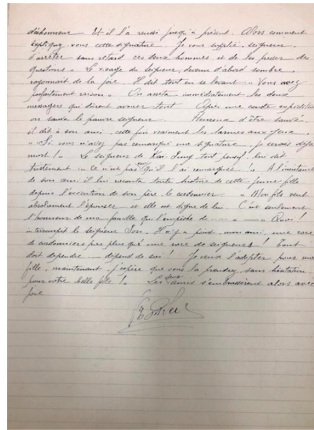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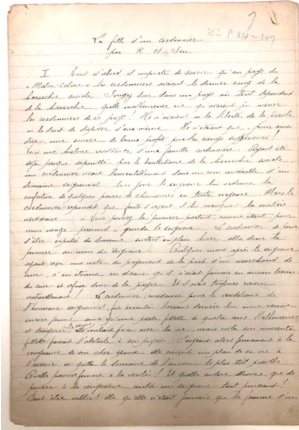
27)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이야기의 특질을 잘 드러내기 어려운 제목으로 보이기도 했다. 가장 마지막 이야기의 제목이므로 다소 광범위하게 쓴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한국에 존재하는 전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가계가 가진 개별의 전설, 혹은 이야기들이라는 의미로 쓴 것이라면 좀 더 그 의의가 명확해진다. 두 이야기가 각각 서희 집안의 가계담과 한양조씨 시조담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상기하면, 서영해가 해석하는 집안, 가계, 핏줄에 대한 꽤 전복적인 해석인 셈이다.

『어느 한국인의 삶』에서 이야기가 실리는 자리는 2부의 말미이다. 불교가 가지는 관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가족의 전통과 족보에 대해 언급하며, 족보에 실린 가족의 일대기인 이 이야기를 어린 박선초가 읽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한국 가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일종의 에피소드로서, 가계의 정체성을 기술하는 이야기로 재구된다. 그러나 서희 전설처럼 덕을 쌓아 그 덕이 내부로 전승되는 폐쇄된 가족 형태안에서의 전통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형태의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되는 교차적 가족의 형태를 구현한다. 특히 이 에피소드에 덧붙여서 생명을 보호하는 한국의 불교적 전통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 인간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 역시 존중하고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인의 세계관이며, 단순히 가족적 가치에서 나아가 보편적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앞서 〈수수의 얼룩〉에서 살펴보았듯 서영해가 가족이나 가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을 존중하고 전통을 지키는 관습을 단순히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적이고 보편적 확장을 전제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셈이다.

4. 『갓바치의 딸』과 『거울, 불행의 원인』의 상호적 탐색

1) 고전서사의 다시쓰기로써 『갓바치의 딸』



『갓바치의 딸』은 아직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진 적도 없고, 번역된 적도 없으며 보관만 확인된 자료로 현재 부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원고는 7페이지 가량이며 손글씨로 쓰여 있다. 이를 텍스트화하여 번역하여 내용을 파악했다.²⁸⁾ 전체를 완역한 후 내린 결론은 고전소설과 설화를 이어 붙여 다시쓰기한 고전서사의 개작이었다. 원고의 형태로 소장되어 있고 출판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기술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데, 소장처에서도 기술 시기를 1920-40년 정도로 넓게 잡고 있다고 한다.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갓바치가 (개성) 부사의 신발을 만들다가 부사의 전횡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 아내와 딸은 복수를 다짐하며 마을을 떠난다.
2. 젊은 양반이 폭우를 피하려다 어느 민가에서 묵게 된다. 그곳에서 어머

28) 서강대학교 박사과정생 Irène Thirouin-Jung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본 원고의 초벌 번역에 힘써주고 흥미로운 번역어를 제안해 주었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니와 딸을 만나 딸에게 반해 자기 소개를 한다. 어머니는 그가 자신의 남편인 갓바치를 죽인 부사의 아들임을 알고 그를 죽여 복수를 하고자 하지만 그가 용서를 빌어 마음을 바꾼다. 아들은 그 딸을 아내로 삼고자 하고 어머니와 딸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3. 한편 갑산을 다스리던 손 왕자(君)는 세력을 잃고 가난해진 후, 이전에 자신의 하인이던 사람들이 모여사는 섬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이에 군은 자신의 친구인 개성 부사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겠다고 부탁하고 편지를 쓴다.
4. 이를 받은 개성의 부사는 내용을 보고 평범한 안부 편지로 여기지만, 집에 함께 머물던 갓바치의 딸이 편지의 서명을 보고 다른 의도로 쓴 편지임을 알아낸다. 손씨 가문에서는 더이상 쓰지 않는 이름이 편지 말미에 서명으로 써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전달하여 개성 부사가 자신의 친구를 구할 수 있었다. 이에 개성 부사는 지혜로운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손 왕자는 친구의 며느리가 될 갓바치의 딸을 자신의 수양딸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텍스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로 이어진다. 영주의 전횡으로 죽임이나毆박을 당하는 상민 계층과 그 복수, 혹은 극복의 구조가 1,2장의 내용이고 손 왕자(君)가 노비를 찾아가 화를 당하는 3장부터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4장에서 1,2장의 주인공인 갓바치의 딸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장이 이어진다. 이 이야기의 3장과 4장은 전승되는 추노 설화류와 접점을 가지며, 그중에서도 『청구야담』의 〈갓구주반노수형劫舊主叛奴受刑〉과 유사하다. 추노를 하러 가서 대접을 받으려 하지만, 결국 노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며, 이 위기를 편지의 특정한 문구를 통해 극복한다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 1) 한양 사는 양반이 먼 지방에 추노하러 가다
- 2) 호적을 조사해보고 노비들에게 천금으로 속량하게 하고 열흘의 기한을

주다.

- 3) 노비들이 이를 원망하지 않고 양반을 직접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고 싶다 한다.
- 4) 양반이 노비의 집에 찾아가 대접을 받으며 한가롭게 열흘을 보내다.
- 5) 속량하기로 한 날 전 날 밤에 건장한 중 수백명이 상전을 에워싸고 협박하기를, 관가에 편지를 써서 바로 집으로 간다고 전하라 한다.
- 6) 양반이 시키는대로 편지를 쓰고 이름을 쓸 때 연월 아래에 휘흠돈이라 쓰고 봉하여 노비 무리에게 주다.
- 7) 관에서 받은 편지의 휘흠돈이라는 글자를 보고 양반이 노비에게 욕을 당하고 있음을 알다.
- 8) 관에서 노비의 집에 찾아가 양반을 구하고 노비를 벌하다.²⁹⁾

따라서 서영해의 글은 이 설화에 기반하여 1,2장, 즉 앞부분을 덧붙여서 다시쓰기한 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휘흠돈은 글쓴이가 위협에 처했음을 암시하는 암호와 같은 것인데, 이를 설명하고자 하면 좀 더 많은 배경지식이 필요하므로, 가문에서 쓰지 않는 이름이라는 설정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전체의 서사 흐름을 고려할 때, 1,2장은 단순히 덧붙인 내용이 아닌 『김학공전』³⁰⁾의 일부를 변형한 구조로도 파악된다. 서사단락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김태일에게 혈육이 없어 슬퍼하다 백발노인이 꿈에 나타나 아들을 점지하여 김학공을 낳다.
- 2) 김태일이 득병하여 앞날을 걱정하나 죽고, 아들 학공이 어릴 때에 노비들이 학공의 집안을 배신하려 하다.
- 3) 이를 알게 된 학공의 어머니가 학공을 숨기고,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한

29) 이강옥 역, 『청구야담 상』, 문학동네, 2019, 574~578쪽.

30) 어숙희·전경옥, 『김학공전권지단』, 박이정 출판사, 1995.

가운데 학공만 살아 남는다.

- 4) 살아남은 학공이 도망노비의 은신처에 들어가서 살다가 도망 노비의 딸, 즉 원수의 딸과 결연한다.
- 5) 학공의 정체가 드러나자 도망노비들이 학공을 죽이려 하고, 노비의 딸이 학공을 살리고 대신 죽는다.
- 6) 학공이 양아버지를 만나 양자가 되고, 결혼하고 과거 급제를 한 후 복수에 성공하다.
- 7) 도망노비의 딸이 꿈에 나타나 부탁하여 학공이 그 부모를 살려주고, 기도하자 아내였던 도망노비의 딸이 살아 돌아온다.
- 8) 학공이 두 부인과 해로한다.

『김학공전』은 앞선 〈겁구주반노수형〉처럼 추노계 설화 혹은 소설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서영해의 글보다 더 길고 복잡하지만, 계급이 서로다른 원수의 아들과 딸이 결연을 하는 설정이 특징이다. 이것은 1,2장에서 부사에게 죽임을 당한 갓바치의 딸과 그 부사의 아들이 결연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흥미로운 것은, 그 아들과 딸의 관계가 상반된다는 점이다. 노비에게 죽임당한 양반의 아들과 도망노비의 딸이 아니라, 양반에게 죽임당한 하층민의 딸과 양반의 아들이라는 설정이 된다. 3,4장에서 도망 노비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양반이라는 설정을 그대로 차용했지만, 1,2장에서는 이를 이어가는 대신, 권력자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노비라는 설정을 대비시킨 것이다.

2) 『갓바치의 딸』과 <채두봉>의 상호적 관계

『갓바치의 딸』을 『청구야담』의 〈겁구주반노수형〉과 『김학공전』의 혼종적 다시쓰기라 볼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거울, 불행의 원인』의 <채두봉>과도 유사하다. <채두봉>은 채광도, 채두봉, 채근신 채씨 집안 삼대의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채광도는 당과 싸움 탓에 몰락하여 아들 두봉과 함

께 산에 은거하게 되었다. 이후 두봉이 자라서 옛날 집안의 종이었던 이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 그러나 송서방을 비롯한 하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 두봉을 죽이려 하고, 두봉의 유모였던 송서방의 어머니가 그를 살리고자 한다. 이에 두봉은 독방에 갇혀 오랜시간 감금된다. 이후 새로운 원님 채근신이 그를 발견해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그가 두봉의 아들이었다는 줄거리이다. 아래는 <채두봉>의 일부와 『갓바치의 딸』의 일부로 기술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옛날 아버지의 하인들이 모두 먼 지방에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을 찾아가서 얼마간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어느 화창한 날 그는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가족을 떠났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한 끝에 그는 마침내 가려던 마을에 도착했다. 집들의 외양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우아함으로 부유한 마을이라는 것을 믿기에 충분했다. 그는 좋은 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 집에는 옛 하인 중 한명이 살고 있었고 문 앞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중략) “결국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닌가? 당신은 우리를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평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는 매우 흥분했다. “우리는 여기서 양반으로 살고 있소 그런데 당신이 이 마을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분이 밝혀질 수 있단 말이오.”³¹⁾

31) Soudain une idée lui vint : il savait bien que les anciens esclaves de son père vivaient tous très heureux et riches dans une contrée lointaine. Il se proposa d'aller les voir et de solliciter de leur part quelques secours. Aussi un beau jour, il quitta les siens en leur assurant qu'il reviendrait riche. C'est en mendiant de village en village qu'il atteignit enfin la ville proposée. L'aspect des habitations et l'élégance des passants laissaient croire suffisamment que c'était une ville riche. Il frappa à la porte d'une belle maison habitée par un de ses anciens serviteurs dont le nom était gravé à l'entrée.(...) « Tu viens ici, en somme, pour troubler notre bonheur ! n'est-ce pas ? Vous vous êtes assez servi de nous! Laissez-nous donc maintenant vivre en paix! s'enflamma-t-il, sache que nous vivons ici en Yang-Ban et ta présence dans cette ville peut

어느 날 개성 부사가 오래된 친구의 방문을 받았다. 갑산(Capsan)을 다스리는 손 왕자(君)였다. 예전에는 부유하고 권력이 강했지만, 지금은 왕의 질투로 총애를 잃은 뒤 몹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부리던 수많은 종들이 비옥한 섬에 모여 주인 노릇을 하며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려고 했다. 더군다나 그들의 초대를 몇 번 받은 적도 있었다. 그래서 그 섬에 가는 길에 개성을 지나가자 개성 부사를 방문한 것이었다. 친구의 집에 짧게 머물다가 결국 섬에 도착한 후에는 그곳에서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화려한 주연과 산해진미를 맛보며 그는 거의 두달 동안 주인처럼 머물렀다. 어느 날, 가장 나이든 하인들 중 한 명이 슬픈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주인 어른, 저희가 주인 어른께 희생을 부탁드려야만 합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충분히 이치에 밝은 분이기때 저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말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말해보게!” “저희는... 주인 어른의... 목숨이... 필요합니다.” “내 목숨이라니?” 방안에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그 때 방에서 우렁차고 강압적인 목소리가 울렸다. “주인 어른께서는 충분히 오래 사셨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주인 어른의 죽음이 저희 모든 동료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마련해줄 거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른께서 살아 계시는 한, 우리는 우리 미래를 위해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으니 말이오 아니! 사십 년 넘게 주인 어른을 잘 모시지 않았습니까? 주인 어른께서 저희에게 고마운 마음이 없다면 적어도 인간의 도리로 처신하십시오! 이미 결정은 내려진 것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³²⁾

fort bien divulguer notre origine. 『거울, 불행의 원인』, pp.105~107.

- 32) Le seigneur de Kai-Sung recevait un jour la visite d'un vieil ami intime. C'était le prince Son, seigneur de Capsan. Autrefois riche et puissant, aujourd'hui disgracié par la jalousie de son roi, il vivait absolument dans la misère. Alors sachant que ses anciens esclaves, très nombreux s'étaient réunis dans une île fertile où ils vivaient en maîtres et en toute aisance, il voulait leur imposer quelque secours matériel. D'ailleurs il avait reçu à plusieurs reprises leur invitation. C'était son passage à Kai-Sung pour l'île qu'il rendait une visite à son ami. Après un court séjour chez ce dernier, il arriva donc dans l'île, où il fut reçu très respectueusement. Au milieu de fêtes splendides et de bonne chair, il y demeura en seigneur pendant près de deux

그러나 서사구조는 꽤 유사하다. 몰락한 양반의 존재, 그 양반을 모시던 하인들이 모여사는 마을의 존재, 양반의 도움 요청, 그리고 신분을 숨기고자 하는 하인들의 욕망과 이로 인한 위협 등의 서사구조가 겹쳐진다. 다소 달라지는 것은 결말 부분이다. <채두봉>에서 채두봉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며, 아들이 자랄 때까지 구조가 20여년간 지연된다. 반면, 『갓바치의 딸』에서는 네 번째 장이 양반의 목숨을 구하는 부분으로, 그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혈연도, 자신과 같은 양반계급인 친구의 혈연도 아니라, 친구의 며느리가 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딸이며, 하층 신분, 즉 자신의 하인들보다도 낮은 계급의 사람이다. 다만 이 덕분에 구조의 시점은 앞선 이야기보다 훨씬 당겨지는데, 그녀가 이미 지혜로운 눈을 가졌으며 이 덕분에 구조를 청하는 양반의 메시지를 잘 해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	서사구조				
거울, 불행의 원인-채두봉	몰락한 양반	양반을 모시던 면천 하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존재	몰락한 양반의 도움 요청	신분을 숨기고자 하는 하인들의 욕망/양반의 위기	양반의 위기 극복-혈연(아들)의 구출

mois. Un jour un des plus vieux de ses anciens esclaves vint lui dire tout tristement : « Seigneur, nous sommes bien obligés de vous demander un sacrifice. Nous croyons savoir d'avance, et pourtant avec regret, que vous êtes trop raisonnable pour refuser notre demande » — « Que voulez-vous ? parlez ! » — « Il... nous... faut... vo...tre... tête. » — « Quoi ! ma tête ! » Un silence profond régna dans la chambre. A ce moment une voix vigoureuse et imperative s'éleva en dehors de la chambre : « Vous avez assez vécu, vous pouvez mourir ! Songez à ce que votre mort rendra la vie supportable à tous mes compagnons, car tant que vous êtes vivant, nous ne pouvons agir en rien pour notre avenir. Eh quoi ! ne vous avons-nous pas bien servi pendant plus de quarante ans ! Si vous ne voulez pas nous être reconnaissant, soyez au moins humain ! Maintenant la décision est prise, laissez-nous faire ! »

갓바치의 딸	몰락한 양반	양반을 모시던 면천 하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존재	몰락한 양반 의 도움 요청	신분을 숨기 고자 하는 하 인들의 욕망/ 양반의 위기	양반의 위기 극 복-친구의 머 느리가 되기 원 하는 갓바치의 딸 구출
--------	--------	---	-------------------	--	--

서사구조에 주목한다면 <채두봉>의 확장된 편이 『갓바치의 딸』로 이어진 셈이다. 실제로 『거울 불행의 원인』이 구축한 서술의 일관성 측면에서 <채두봉>은 그 의도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지주의 전형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다수 수록된 것과는 다르게, 이 이야기에서 면천된 하인들이 악행을 저지렀기 때문이다. 반면, 『갓바치의 딸』에서 이루어진 개작은 의미가 좀 더 명징하다. 불합리한 계급 구조가 그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 해결은 계급의 극복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채두봉>을 읽는다면, 이것은 하층 계급의 악행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계급 구조가 만들어 내는 비극성을 환기하는 이야기로 읽힌다.

서영해의 개작은, 저자 서영해의 정체성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설화를 들려주고 이것을 공유하는 것은 민중적 전통과 관습의 계승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변형없는 계승은 아니다. 세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이야기들이 기존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 해체와 위협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기존의 가족적 전통과 가계의 존중이 폐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확장된 네트워크 안에서 재구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서영해의 글쓰기를 관통하는 정체성이며, 고전과 설화, 구술적 이야기에 대한 서영해의 해석이기도 하다. 이것은 <채두봉>의 두 이본에서도 명확한데, 두 텍스트에서 가장 큰 차이 역시 계급적 갈등을 극복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이것을 삼대로 이어지는 혈연 가계 내에서 해결했고, 후자는 이것을 바깥의, 낮은 계급의 구성원을 통해 해결했다. 따라서 서영해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가족적 폐

쇄성 안에서 유지되어 오던 계급의 한계를 에둘러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갓바치의 딸』의 경우, 『거울, 불행의 원인』보다 뒤에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기도 한다. 기존의 이야기의 좀 더 현대적이고 대안적인 개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 결론

서영해의 글쓰기는 일종의 재해석을 거친 다시쓰기이고 이 다시쓰기를 단순히 한국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화하기에는 그 스펙트럼을 지나치게 축소할 수 있다. 고전서사와의 관계를 통해 문학적 관점에서 서영해의 다시쓰기에 접근하고자 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서영해에게 고전서사는 장르적 관점에서 고전소설과 설화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지만, 소설과 설화를 구분하는 인식이 전제된다. 이전의 조선에서 계급의 한계를 인지한 서영해는 민중이 공유하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설화를 이해했고, 그것이 독립운동가인 서영해가 민족 설화, 즉 한국의 설화를 지속적으로 다시쓰기 한 배경이라 하겠다. 서영해는 조선적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지만 그가 다시쓰기한 이야기들에서 그것이 회귀는 아니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계들을 오가며 조선적 전통과 근대적 소망을 브리콜라주처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관련된 연구에서 서영해의 저작들은 프랑스에서 고무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기술된다. 『어느 한국인의 삶』은 서영해의 고려통신사에서 발간했지만, 후속작인 『거울, 불행의 원인』은 일반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관심의 정도가 높아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1900년대 초반의 프랑스에서, 조선과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어디쯤

에 있던 동양인 서양해의 글과 주장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주 다수라고 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한국을 번역하여 제시한 서영해의 글쓰기는 애초 번역이 번역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가장 근접한 접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에둘러가지만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누구든 그 글을 찬찬히 읽고 탐색하는 것이 그 지난한 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일 것이다. 서영해의 작업과 자료가 알려지고, 이것이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2010년대 이후이므로 꽤 최근이다. 그러한 시도가 늦게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고문헌

- 김민호,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특파원』, 선인, 2021, 1~276쪽.
- 서영해, 김성혜 역, 『어느 한국인의 삶』, 역사공간, 2019, 1~272쪽.
- 어숙희·전경옥, 『김학공전권지단』, 박이정 출판사, 1995, 1~82쪽.
- 이강옥 역, 『청구야담 상』, 문학동네, 2019, 총 1~996쪽.
- 장정아 외 3인 저, 『외국어 번역 고소설 선집 9-번안소설 1 춘향전』, 박문사, 2017, 434쪽.
- 정상천,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산지니, 2019, 1~396쪽.
- Seu, ring-hae, *Autour d'une vie coréenne*, Éditions agence Korea: Paris, 1929, pp.1~189.
- Seu, ring-hae, *Miroir, cause de malheur!*, 새문사, 1977, pp. 1~214.
- Seu, ring-hae, *La fille d'un cordonnier*, 부산박물관 소장, 연대미상
- 김민호, 서영해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1~168쪽.
- 한지희·김효경·이혜은,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69, 한국서지학회, 2017, 307~325쪽.
- 박성창,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의 문화적 재현- 서영해의 프랑스어 창작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6,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67~101쪽.
- 송태현, 「『심청전』의 프랑스 역본 『다시 꽃 핀 마른 나무』의 문화적 의의」, 『동서비교문학저널』, 47, 2019,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137~160쪽.
- 조은상,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각편의 변이양상과 서사적 의미」, 『겨레어문학』 51, 겨레어문학회, 2013, 595~637쪽.
- 장석홍,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불특파위원, 서영해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 한국근현대사학회, 215~249쪽.
- 장정아, 「외국문학텍스트로서 고소설 번역본 연구(Ⅰ) -불역본 『춘향전』 Printemps parfumé에 나타나는 완벽한 '춘향'의 형상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48, 2015, 열상고전연구회, 379~411쪽.
- 장정아,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번역본과 시선의 문제 - 홍중우의 불역본 『심청전 Le Bois sec fleuri』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109, 2017, 167~193쪽.
- 장정아, 이은령, 「홍중우의 『直星行年便覽』 불역본과 쿠랑의 「한국의 종교의례

- 약사略史」를 중심으로 본 19세기 말 프랑스 한국학의 한 양태, 『인문 연구』 8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115~152쪽.
- 최두진, 「독립운동가 서영해의 삶과 교육활동 연구」, 『항도부산』 4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77~217쪽.
- 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회, 2011, 197~226쪽.
- 황인순, 「근대 프랑스어설화집의 기술 체계 연구-〈거울, 불행의 원인〉을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45, 한국구비문학회, 2017, 305~338쪽.
- 황인순, 「서영해 설화집 『거울, 불행의 원인』의 서사적 특질 연구」, 『구비문학 연구』 53, 한국구비문학회, 2019, 321~360쪽.
- 황인순, 「1900년대 외국어 기술 설화집의 지형도 연구 -다시쓰기를 통해 번역 된 한국」, 『韓國古典研究』 6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 275~324쪽.

ABSTRACT

A study of classical Korean narratives described in French:
On the writings of Seo Young-hae

Hwang, In-so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dentity of classical Korean narratives in French, and based on th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research and to refine the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focuses on three classic Korean narrative texts written in French by Seo Young-hae: *Autour d'une vie coréenne*(1929), *Miroir, cause de malheur* (1934), and *La fille d'un cordonnier* (unknown). The last text, in particular, is the first to be introduced in this study and translated that Seo Young-hae has been writing Korean classical narratives in French throughout her stay in France.

This book, described in French by a Korean native author, has classical narratives as its main object of description. The classical Korean narratives, reinterpreted from Seo's perspective, represent Korea as he interpreted it, or Korea as he translated it. The pursuit of Korean independence, which was consistent with his stay in France with a clear purpose, and his understanding of the Korean tales based on it,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that constitute Seo's rewriting, or translation.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how Seo interprets and translates Korean classical narratives by focusing on the external and internal relationships surrounding writing. To do so, I will analyze the three texts interactively and examine the adaptation of classical narratives and the linguistic and cultural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al narratives through them. While Seo emphasizes the inheritance of folk traditions and customs, he also emphasizes that it is not simply an inheritance without transformation, and that existing traditions can be reconstructed within

an expanding network rather than closedly linked. This is Seo's interpretation of the classics, tales, and oral tradition, and his hope for a post-modern Korea.

Key Words

Autour d'une vie coréenne, *Miroir, cause de malheur*, and *La fille d'un cordonnier*, Seo Young-hae, Classical Korean narratives described in French

논문투고일: 2023.10.15.

심사완료일: 2023.10.31.

게재확정일: 2023.11.02.